

# 개방전에 제도개혁 마무리해야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월간양돈 창간 14주년을 맞아 그동안 월간양돈의 발전을 위해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적극 후원해주신 광고주 여러분에게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근대 양돈업의 초창기에 태어난 월간양돈은 지난 14년간 양돈기술과 정보의 불모지였던 국내 양돈업계에 최신 양돈기술과 국내외의 양돈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면서 국내 양돈산업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건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국내 유일의 양돈전문지로서 맡은 책임과 역할이 컸고, 앞으로도 한국 양돈을 선도하면서 없어서는 안될 전문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이제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외국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경쟁에서 낙오해 도태되느냐 하는 생존권과 결부된 실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88~89년부터 외쳐오던 돼지고기 수입개방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6개월후면 냉장 돼지고기가 개방되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오는 97년 1월 1일부터는 양돈업을 비롯해 낙농·양계업 등 모든 축산업이 개방됩니다.

냉동돼지고기의 수입개방도 먼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가장 길게 잡아 3년이란 기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GATT BOP를 졸업하면서 97년 7월부터는 모든 농축산물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수입개방의 여파가 어떤지는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보듯, 개방도 되지 않은 쇠고기시장의 50%를 이미 수입쇠고기가 잠식해 버렸고, 이제는 음식점 협회, 슈퍼마켓협회, 육가공업체들이 SBS에 참여해 마음대로 쇠고기를 수입,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쇠고기의 소비증가는 곧 돼지고기의 소비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수입개방이라는 사슬이 우리 양돈업계를 옥죄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이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지 냉철한 마음으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입개방이 예고된 지난 4~5년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항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여러가지 말은 많았으나 실천되지 않았습니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돼지 생산비는 경쟁국인 미국보다 무려 80%나 높은 12만4천원(90kg 1마리 기준)에 달합니다. 미국이 가공비와 운반비, 관세 등 수출에 따른 제경비를 포함하더라도 9만5천 원이면 돼지 1마리를 국내시장에 도착시킬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국내 양돈산업이 온존할 수 있겠습니까? 25%에 달하는 갭을 과연 언제까지 방치해야만 하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한 88년이후 돼지 생산비는 한번도 떨어진 해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사에는 모두 때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혹자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격언에 담겨있는 뜻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격언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길만이 피해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수입이 개방되는 94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주장 해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생산비를 낮춰야 하겠습니까. 즉 배합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요즈음 진행되는 “사정”과 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다는 “개혁차원”에서 금년중에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려는 “신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자금제도 입법, 배합사료 원료 수입 자유화 및 관세 면제, 분뇨처리 시설자금의 보조 또는 장기저리융자 등은 생산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하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신농정 1차계획이 끝나는 97년의 우리나라 축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두당 출하두수는 몇두까지 높이고,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는 얼마까지 낮출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한 손실액은 얼마까지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 생산자 단체가 할 일, 생산농민이 할 일 등을 구분해 신농정의 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축정이 펼쳐져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칩시다.

창간 14주년을 맞는 월간양돈은 급변하는 세계 양돈사의 흐름을 냉철히 분석하고, 국내 양돈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학계, 업계를 견인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창간 14주년을 맞아 그동안 월간양돈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